

윤석열 급부상에 여야, 대권구도 셈법 복잡

민주, 이재명 '행정가' 경쟁력 부각 기대...이낙연, 보선 결과 '변수'
정세균·김경수 등 잠룡들 재조명...범야권, 與 대항마 등장에 반색

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지지율이 급등하자 여야의 대권 구도에도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. 더불어민주당에선 '윤석열 대항마'를 찾는 흐름이 본격화되며 대권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. 국민의힘도 그동안 여당에 크게 밀렸던 지지율 격차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후보의 출현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.

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"윤석열의 등장으로 3개월 이상은 우리 내부도 유동성이 큰

상태로 갈 것"이라며 "여당의 중심을 잡아주며 대세론을 형성할 주자가 있는지 고민이 시작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이재명 지사가 대세론을 이룰지에 대해서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. 이 지사 측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수록 이 지사의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당내 지지세가 확고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. 당내 일부에선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윤 전 총장이 뜰수록 친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치를

사수할 후보를 찾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. 이 경우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친문과 갈등을 겪었던 이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. 이낙연 대표로선 4·7 재보선 승리가 '필수'가 돼버린 상황이다.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지지율 반동의 계기를 여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. 이 대표 측에선 친문 진영의 결집도가 강해질수록 현 정부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 대표에게 기회가 올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.

제3 후보들의 공간도 더욱 커지고 있다.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당에 복귀하는 시점에 지지율이 5%

를 넘어서면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.

윤 전 총장과 접하게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, 친문 핵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후보군으로 꼽힌다. 김경수 경남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, 김두관·이광재·박용진 의원, 최문순·양승조 지사, 이인영 장관, 김부겸 전 의원 등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인사라면 모두 대권의 링에 나서는 '13통 등판론'도 재조명되고 있다.

대권 주자 기근에 시달려온 범야권은 검찰을 박차고 나와 당수에 대권 지지율 1위를 거머쥔 '자연인' 윤 전 총장의 잠재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.

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"윤 전 총장이

상식과 정의, 공정이라는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이미지를 스스로 형성했다"고 말했다.

다른 관계자는 "박근혜 전 대통령은 잘못했지만, 문재인 대통령은 더 싫다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것"이라며 높은 대권 경쟁력을 기대했다.

윤 전 총장이 '정치인'으로서 기본 자질을 갖췄다는 데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. 범야권 '킹메이커'를 자임하는 김무성 전 의원은 통화에서 "재목으로 괜찮아 보인다"며 "정권을 잡으려면 뱃속에 불타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, 그런 것을 타고난 것 같다"고 평가했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·연합뉴스



"주택 공급,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"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(왼쪽 두 번째)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사장 직무대행(맨 오른쪽)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직원 투기 의혹 관련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박영선·김진애 단일화 합의

민주당·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...토론회 2회·16~17일 여론조사

'미리보는 대선'으로 평가되는 서울시장 여야 후보 단일화 작업이 본격화 하고 있다.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9일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.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두 차례 토론회를 포함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.

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단일화를 위해 11일, 15일 총 2번의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. 이어 16~17일 민주당 권리당원, 열린민주당 의결당원 전원이 참여하는 당원투표 결과를 50%, 무작위로 뽑은 서울시민 투표 결과를 50% 각각 반영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해 단일후보를 선출한다.

여론조사 결과는 후보 등록(18~19일) 전날인 17일 저녁 발표된다.

현재 서울 거주 민주당 권리당원은 약 15만명, 열린민주당 의결당원은 약 2500명이며서 산술적으로도 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다.

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실무 협상도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. 국민의힘 실무협상단(정양석 사무총장, 성일종 의원, 권택기 전 의원)과 국민의당 실무협상단(이태규 사무총장, 정연정 배재대 교수, 이영훈 전 국회부의장 비서실장)은 이날 오후 4시 여의도 정치카페 '하우스'에서 상견례를 하고 단일화 쟁점 논의에 착수한다.

오 후보와 안 후보가 최근 직접 만나 후보자 등록 일(18~19일) 전 단일화 등 큰 틀에 합의한 상황이지만, 두 후보의 지지율이 팽팽하게 근접하면서 신경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.

국민의당은 신속한 단일화 협상을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다. 안 후보 측 일각에는 오 후보 측이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'침대 축구' 전술을 쓰는 것 아니냐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. 협상을 미뤄 오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. /오광록 기자 kroh@연합뉴스

"LH 직원 투기 참담"

변창흠 국토부장관 대국민 사과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과했다.

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"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"이라며 "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,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"고 말했다.

변 장관은 "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"며 "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"고 덧붙였다. 또 "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,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한편,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"고 이어나갔다. /오광록 기자 kroh@

박용진 "호남 마음 얻어 국민 마음 얻겠다"

대선 1년 앞 광주 방문...광주시의회서 '리셋 대한민국' 북 토크

차기 대권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9일 대선 1년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.

박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광주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당심을 얻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"며 "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첫 행보를 광주에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"고 밝혔다.

박 의원은 앞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참배한 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강당에서 열린 '미서훈 독립유공자 신원을 위한 간담회'에 참석해 "독립운동가 서훈 인정을 위해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그는 "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서훈 문제를 잘 풀어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고 생각한다"고 말했다. 그러면서 "노무현 대통



령 시절, 좌익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서훈 기준이 이념 중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점으로 바뀌었다"면서 "더 많은 분들의 희생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준, 제도적 기준을

바꿔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 최근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"국민에게 검증할 시간을 줘야 했다"며 "새 인물인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모욕이다"고 밝혔다.

박 의원은 이날 양동시장 방문에 이어 광주시의회에서 '리셋 대한민국' 북 토크를 열었다.

/최권일 기자 cki@kwangju.co.kr

여의도 브리핑

이병훈, 서민 주택문제 해결방안 정책 토론회

더불어민주당 이병훈(광주 동남구) 국회의원은 지난 8일 '우리집 프로젝트 정책토론회'를 제목으로 서민 주택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했다.

이 자리에는 경기도에서 '우주의집 프로젝트'를 주도하고 있는 박정(파주시) 국회의원과 인천 영종도에서 공유의 집 사업인 '누구나집 프로젝트'를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병천 시너지시티(주) 대표가 참석하여 사례를 발표했으며, 동구와 남구의 구청장, 시의회의장, 시의회 의원들,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대표,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.

'우리집프로젝트'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공유프로젝트다. 주택을 실제 가격의 10%



만 부담하면 향후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, 30년 후에 당초 가격대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.

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 가격의 겹은 정책금융과, 각 종 투자금융 등을 통해 해결하며, 거주민의 금융 신용도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것도 매우 큰 특징이다. 이 의원은 "'우리집프로젝트'를 통해 민중의 도시 광주가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도입하고 서민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"고 소감을 밝혔다. /오광록 기자 kroh@

꼭! 받아야할 돈 회수

판결문, 공증·공사대금·각서·운송료·차용증
거래장부·계약서·입금 내역·녹취 등 각종채권상담

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

(재산조사비,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)

- 채무자 재산, 신용·주거래은행·차량 등 파악
- 실거주지 파악 가능
-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

24시간 상담가능

전문추심인

직접관리

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
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.
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중앙신용정보

직통전화 **062)521-4109**
010-2860-4700

광주보청기 난청센터

보청기

무료체험

직접 체험 후 결정!!

✓ **잡음없이 깨끗한 소리**

✓ **윙윙~ 울리지 않는 보청기**

062)362-3336

광주 동구 대인동 183-2번지 (한미쇼핑사거리)